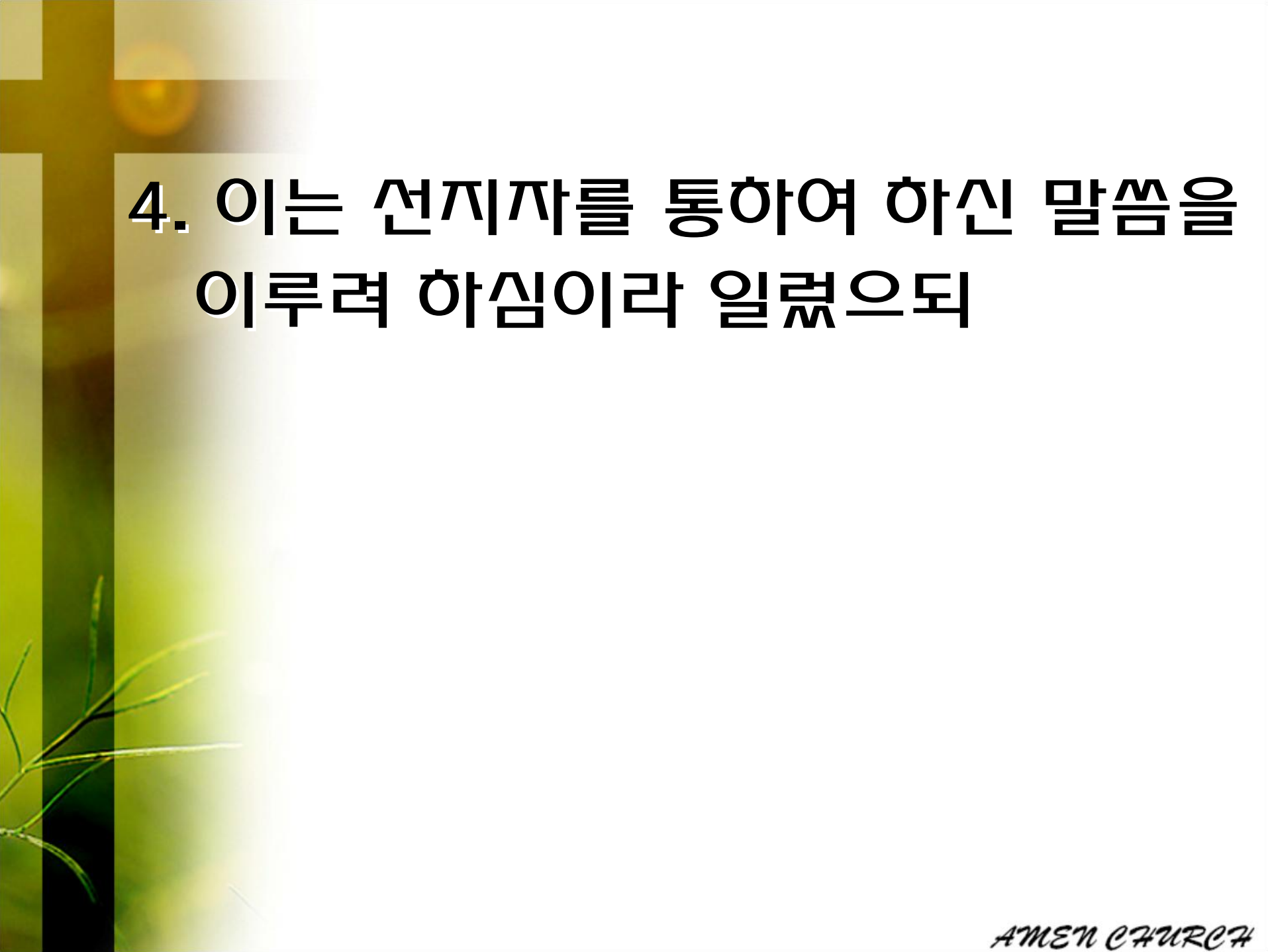


마태복음 21 : 1 ~ 11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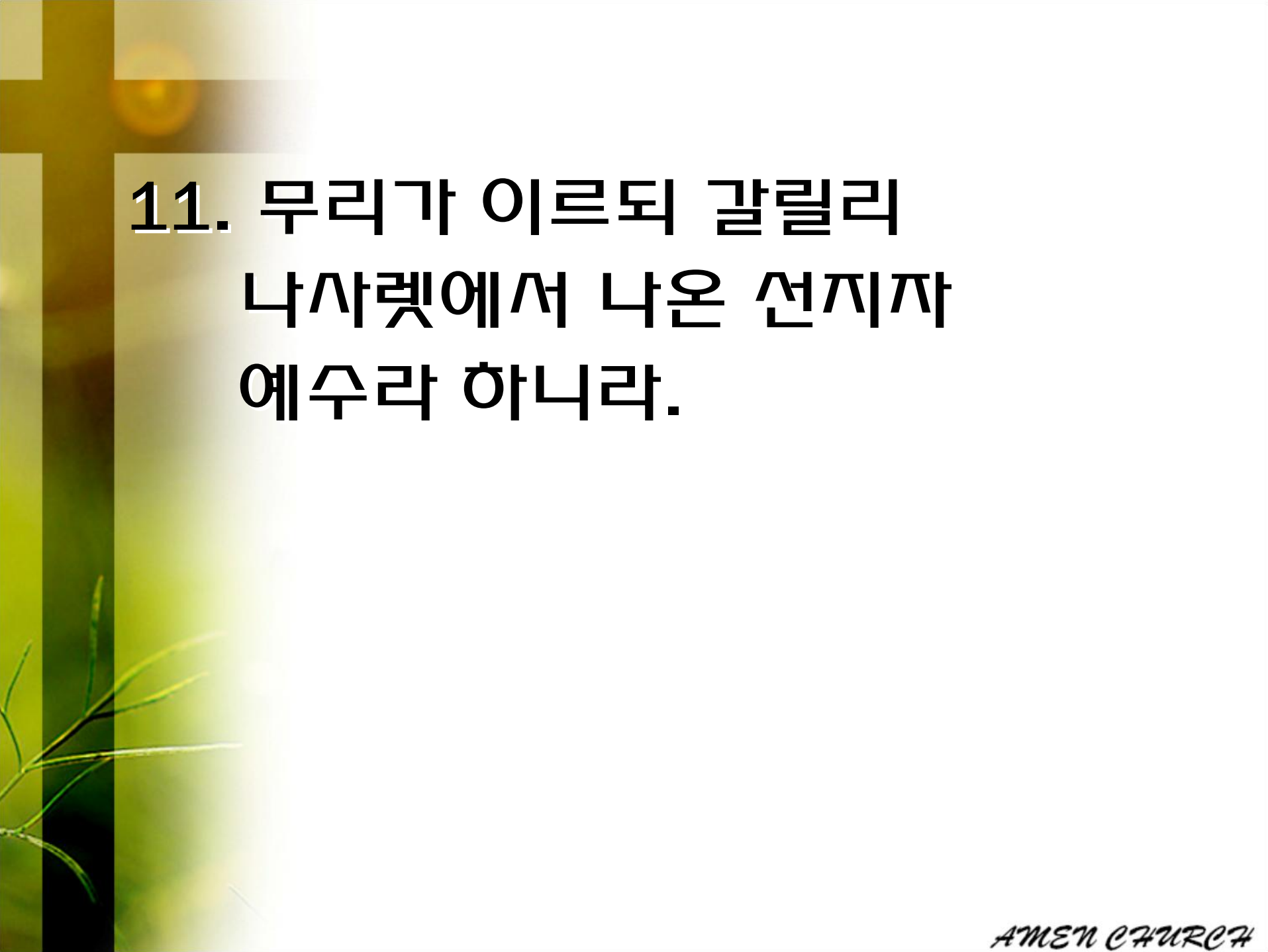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짜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띄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띄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귀를 타신 왕

최봉우 목사

나귀를 타신 왕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1.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슥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궁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2.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를 타신 왕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나귀를 타신 왕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나귀를 타신 왕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나귀를 타신 왕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